

##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타당화

전은지\*

최기현\*

하정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한국판 번안 및 타당화 검증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성인 총 362명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요인분석 결과 '슬픔', '분노', '외상' 3개의 요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각 하위 요인 및 전체 척도에서 양호한 수준인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척도는 기존의 반려동물 애도척도와 유사한 개념인 우울, 상태분노, 죄책감과 상이한 개념인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성별 간 반려동물 애도의 차이에서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애도, 분노, 외상을 경험하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슬픔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반려동물 상실 후 5년 정도까지 사람들의 외상 수준의 심리적 고통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활용방안, 문화적, 성별 및 기간별 차이, 시사점, 한계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반려동물 애도 척도, 반려동물, 반려동물 상실, 타당화

\* 공동저자: 전은지(제1 저자),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최기현,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510호. Tel: 0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이 명칭은 1983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중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담긴 ‘애완동물(pet)’이라는 명칭 대신 사용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3(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2021년 12월 15일)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하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려동물 보다는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였다(이용숙, 2017).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보편화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통계청(2021)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5%에 해당하는 310만 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2021)에서 조사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과거를 모두 포함하여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5천 명 중 6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방송하고 있는 KBS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를 통하여 반려동물이 단지 일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인간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역할은 최근 몇 년 동안 변화해왔으며,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마치 가족과 같

다(Verga & Michelazzi, 2009).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녀와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고 보고한다(Cohen, 2002; Nieburg, 1984; Planchon, Timpler, Stokes, & Keller, 2002). 또한, 반려동물들은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사회적 지지요소를 가지고 있다(Friedmann & Thomas, 1995). Sharkin과 Knox(2003)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국내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사람들이 반려동물로부터 친밀감, 정서적 안정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이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상실은 상당한 비통함을 초래한다(Triebebacher, 2000).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다룬 연구들에서 반려동물의 상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이나 배우자를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Brown, Richards, & Wilson, 1996; Podrazik, Shackford, Becker, & Heckert, 2000; Turner, 2001). 그럼에도 반려동물의 상실은 가족, 친구, 동료 및 지인들로부터 이해나 동정을 많이 받지 못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이 느낀 상실감에 대해 주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고 지각하거나 “그냥 하나 더 사와”라고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심한 냉담함을 경험하기도 한다(Quackenbush & Glickman, 1984). 주변인들에게는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깊은 유대가 병적으로 인식될지 몰라도,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유대관계를 과소평가하는 행위일 수 있다(Morely & Fook, 2005). 실제로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으로 함께 지낸 반려동물이 죽거나 사라진 후 생기는 상실감과 고통, 슬픔, 우울감으로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라는 정신적 장애를 겪기도 한다. 종합

하면,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리움, 주변인들에 대한 불신 및 분노,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보지 않았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자기비난, 상실로 인한 불안, 우울, 슬픔, 공허감, 그리고 수면 및 식욕의 변화 등을 경험한다(모효정, 2015; Barnard-Nguyen, Briet, Anderson, & Nielsen, 2016; Chur-Hansen, 2010; Hunt & Padilla, 2006; Mohanti, 2017; Sable, 2013; Tzivian, Friger, & Kushnir, 2014; Wrobel & Dye, 2003).

이와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고통은 치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owalski, 2012).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 반려동물 상실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상실감, 슬픔,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Adrian, Deliramich, & Frueh, 2009).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의 회복과 적응을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며(Allen, 2007), 애도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오연주, 2008).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남순예, 2011), 단기간에 반려동물 가구 수가 급성장한 데 반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신적인 감수성은 성장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아시아경제, 2013). 이는 상담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즉,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일부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의 애도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내담자의 상실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들은 심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Packman, Bussolari, Katz, Carmack, & Field, 2016; Rujoiu & Rujoiu, 2014). 이처럼 국내에

서도 펫로스(Pet Loss)라고 부르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상담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상실한 양육자의 애도를 상담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반려동물 상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 상담 사례연구와 같은 탐색적이고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효정(2015)는 펫로스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리한 바 있으며, 전문희와 구훈정(2020)은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에 성인애착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민지와 안현의(2020)는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경험한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복합 비애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심리적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환경적으로 안락사 시킨 반려동물 이외에 현재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이 복합 비애를 덜 경험하였으며, 우울, 불안, 신체화 같은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요인들은 반려동물의 안락사 이후 복합 비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명과 전순영(2020)은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한 후, 우울의 수준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으로 감소하고, 삶의 의미가 상승함을 확인하여 상실로 인한 상담적 개입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김도현 외(2021)은 펫로스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같은 해에 VR을 활용한 반려동물 교감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였다(최형문, 문미경, 이군호, 2021).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의미를 분석하고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최세아, 윤보영, 공리나, 2022).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타당화된 척도가 부재하여 탐색적이고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Hunt와 Padilla(2006)가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애도 척도(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이하 PBQ)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이 겪는 애도의 특징들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척도 개발 초기에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척도를 구축하였다. 반려동물을 상실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Grief)', 주변인들을 향한 '분노(Anger)',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Guilt)', 그리고 반려동물을 상실한 후 겪은 '외상(Trauma)' 등이 각 하위요인에 해당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슬픔 요인은 슬픔과 외로움, 무쾌감증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우울을 반영하고 있다. Hunt와 Padilla(2006)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슬픔의 수준이 인간을 상실한 사람들의 슬픔의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Gerwolls와 Labott(1994)의 연구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애도에 있어서 슬픔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슬픔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라는 것이다(Rujoiu & Rujoiu, 2014). 상실의 환경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보고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죽은 반려동물의 양육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주요한 타인을 상실한 사람보다 더 큰 슬픔을 보고하였다는 연구가 있다(Planchon, Templer, Stokes, & Keller, 2002). 이렇듯,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에서 슬픔은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며 반드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 요인은 수의사, 가족 또는 친구 등 잠재적으로 반려동물의 죽음과 관련한 주변인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민감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Quackenbush & Glickman, 1984). 즉, Hunt와 Padilla(2006)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을 마치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주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Rando(1993)는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슬픔은 분노와 같은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Carmack(1985)은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분노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살리지 못한 수의사를 향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이 분노 감정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죄책감 요인의 경우, 양육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이 살아 있었던 동안 더 잘해주지 못한 자신의 행동, 그리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정도를 말한다. Hunt와 Padilla(2006)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 상담을 하였던 상담자들이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는 Quackenbush와 Graveline(1985)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 이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Packman 외(2014)의 연구에서도 죄책감과 후회를 내담자들이 겪었던 주된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내담자는 3년을 넘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선택을 한 양육자들은 내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며 죄책감을 초래할 수 있다(Chur-Hansen, 2010).

마지막으로 외상 요인은 악몽이나 침투증상과 같은 외상의 증상을 재 경험하는 것과 무감각을 포함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을 반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외상은 그 강도나 지속시간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Carmack, 2003). Wrobel과 Dye(2003)도 반려동물을 상실하는 것이 그 양육자에게 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하거나 자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Peck, 2005). 이미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외상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Brown & Symons, 2016; Compitus, 2019; Hunt, Al-Awadi, & Johnson, 2008; Taylor, & Breen, 2014), Hunt와 Padilla(2006)도 외상을 반려동물 애도의 중요한 요소로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척도의 초기 문항들을 구축한 Hunt와 Padilla(2006)는 안면타당도를 검증하고 만 18세부터 63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 척도 개발을 진행하였다. 통계적 검증절차 중요인분석 과정에서 이들이 이론적으로 구축한 네 개 요인 가운데 외상 요인이 삭제되었고, 슬픔 7문항, 분노 5문항, 죄책감 4문항 등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최종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II: BDI), 그리고 반려동물 애착 척도(Pet Attachment Questionnaire: PAQ)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하여 개발을 완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를 번안한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하여 향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B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Hunt와 Padilla(2006)가 초기에 이론적으로 구축한 외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까

지 포함하여 초기 문항 20개를 모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 문화가 외국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실정에 맞추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cherer와 Wallbott(1994)는 정서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처럼 정서와 관련한 영역은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Mauro, Sato, & Tucker, 1992). 외상과 관련된 어려움도 문화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Pole et al., 2001), 문화적 요소가 외상의 심리적 증상에 대한 인식,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Holman, Silver, & Waitzkin, 2000). 국내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외상 정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각 국가 간의 외상 정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주혜선, 민지원, 김아영, 안현의, 2015). 반려동물 애도 척도가 개발된 미국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중요성에 의해 개발된 초기 문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했던 문항 20개를 모두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척도 타당화가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 상실 관련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증, 반려동물 상실 관련 양적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문제 1. 번안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타당도는 적절한가?
- 연구문제 2. 번안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신뢰도는 적절한가?
- 연구문제 3. 상실 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반려동물 애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반려동물애도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1월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우선 반려동물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권리, 설문조사 내용, 평균 소요시간 및 비밀보장에 대한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참여 의향을 가진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 필요하였으며, 이에 충실히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약속된 보상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한 번으로 일정하게 고정반응을 보이거나 누락된 문항으로 불성실한 양상을 보인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최종 362부를 확보하였다. 타당도 분석 실시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구되는 최소 응답자 수가 200명 이상일 때 적합하며(Crocket & Algina, 1986), 최소 응답자가 300명 이상일 때 바람직하다(Tabachnick & Fidell, 1996; Tinsley & Tinsley, 1987). 이에 본 연구는 적합한 표본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 측정 도구

#### 반려동물애도 척도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반려동물애도척도(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PBQ)는 총 16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높은 점수일수록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한 애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구성개념은 3개의 요인으로 '슬픔' 7문항, '분노' 5문항, '죄책감' 4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번안절차는 다음의 과정을 걸쳐 진행되었다. Hunt와 Padilla(2006)가 초기에 설정하였던 구성개념 4개('슬픔', '분노', '죄책감', '외상')에 대한 20문항 전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번안과정에는 연구자와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며 이중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석사과정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 한 박사 1명이 반려동물애도척도를 번역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번역된 문항들을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며 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교수 1명이 역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며, 완성도 있는 문항을 구성을 위해 반복적인 수정과 적절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사수료생 1인, 박사과정생 1인이 한국어와 영어로 된 문항들을 직접 확인하며 설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번역문항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 '내 반려동물의 질병/상처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문항들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며, 반려동물 애도 수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Hunt와 Padilla(2006)의 연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확인되었다.

#### 우울 척도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용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고 타당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과 마지막으로 생리적으로 우울을 나타내는 증상들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등이 있다. 총 점수는

0점부터 63점까지 측정되며, 각 문항은 0점부터 3점까지 평정한다. Beck(1967)의 점수 분류체계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9점 이하), 경미한 우울 상태(10점에서 15점까지), 중도 우울 상태(16점에서 23점까지), 극심한 우울 상태(24점에서 63점까지)를 나타낸다. 이용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일반인 .78, 우울환자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확인되었다.

####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pielberger(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김동연과 이준석(2000)이 국내 실정에 맞게 변안과 수정과정을 통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5개의 하위척도는 분노경험에 대한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에 대한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통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척도 중 분노경험에 대한 상태분노 10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짜증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에게 소리치르고 싶다.' 등이 있다. 상태분노의 수준에 따라 4점 Likert식 척도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4점)까지 평정한다. 전경구 외(2000)의 연구에서 상태특성 분노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며, 본 연구에서 .95로 확인되었다.

####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의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국내 실정에 맞춰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마지막으로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등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지지 자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확인되었다.

#### 자의식적 정서 척도

Tangency, Dearing, Wagner와 Gramzow(2000)가 개발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3)를 심종은(1999)과 송수민(2007)이 변안하고 수정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죄책감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른 죄책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당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작은 동물을 치었다. 당신은 피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는지 생각한다.', '친구가 휴가를 가는 사이 당신에게 자신이 기르던 개를 돌보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개가 달아나 버렸다. 당신은 다음에는 더 잘 보아 주리라 다짐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죄책감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여 높은 점수는 죄책감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송수민(2007)의 연구의 죄책감 척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0이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

였다. 먼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측정변수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에는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청택(2016)의 제안에 따라 사각회전 하였고, 패턴행렬로 요인 구조를 탐색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결과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들의 준거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과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관련성이 예측되는 여러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통하여 타당도 확인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기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연구에 응답한 성인 남자는 73명(20.2%), 여자 289명(79.8%)이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5.76세 ( $SD=8.09$ )로 구성되어 있다. 상실한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76.1%), 고양이(20.2%), 기타(3.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상실한 이유는 노화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N=362)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3	20.2	1년 미만	15	4.1
	여자	289	79.8	1년 이상 3년 미만	45	12.4
	계	362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41	11.3
연령(만)	20대	67	18.5	5년 이상 7년 미만	44	12.2
	30대	201	55.5	7년 이상 10년 미만	45	12.4
	40대	68	18.8	10년 이상 13년 미만	76	21.0
	50대	21	5.8	13년 이상 15년 미만	32	8.8
	60대	5	1.4	15년 이상 17년 미만	26	7.2
	계	362	100.0	17년 이상 20년 미만	21	5.8
	계	290	76.1	20년 이상	17	4.7
반려동물 종류 (중복 선택)	고양이	77	20.2	계	362	100.0
	기타	14	3.7	1년 미만	59	16.3
	계	381	100.0	1년 이상 3년 미만	119	32.9
				3년 이상 5년 미만	74	20.4
반려동물 상실이유 (중복 선택)	만성 질환	37	9.4	5년 이상 7년 미만	110	30.4
	급성 질환	67	17.0	계	362	100.0
	사고	40	10.2	예	36	9.9
	노화	205	52.0	아니오	326	90.1
	안락사	15	3.8	계	362	100.0
	실종	18	4.6	심리치료 여부		
	기타	12	3.0	예	36	9.9
계	381	100.0	아니오	326	90.1	
			계	362	100.0	

(5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급성 질환(17.0%), 만성 질환(9.4%), 사고(10.2%), 실종(4.6%), 안락사(3.8%), 기타(3.0%)순으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의 상실 후 지난기간은 높은 비율의 순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32.9%), 3년 이상 5년 미만(20.4%), 1년 미만(16.3%), 5년 이상 7년 미만(8.8%), 10년 이상 13년 미만(8.0%), 7년 이상 10년 미만(5.5%), 20년 이상(3.0%), 17년 이상 20년 미만(2.2%), 13년 이상 15년 미만(1.7%), 15년 이상 17년 미만(1.1%)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모형 적합도**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 20문항의 요인 구조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요인분석 모형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값은 .86으로 .80 이상은 양호한 적합도이며(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chi^2 = 1735.68 (df = 66), p < .001$ 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에 적합한 요인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송지준(2015)의 문항 선정 과정에 의한 요인부하량 기준이 .30 이상이면 평의한 값이며 좋은 문항 기준인 .40 이상으로 선택할 것을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서 하나의 문항이 .40보다 작은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요인과 .10보다 작은 차이를 나타내는 교차부하(Costello & Osborne, 2005)된 문항들을 반복 선별하여 8개 문항을 제거하고 12개 문항을 최종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Kaiser 규칙에 의한 요인 수 결정 방법인 고유값 1.0이상인(Kaiser, 1960) 유효 요인은 3개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스크리도표를 확인한 결과, 고유값들이 평균화되는 지점에서의 확인된 유의미한 요

**표 2. 한국판 성인용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요인구조 및 내적 일치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13. 나의 반려동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	.79		
8. 나의 반려동물이 사무치게 그럽다.	.79		
16. 나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무척 비통함을 느낀다.	.78		
18. 내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	.68		
10. 내 반려동물을 좀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68		
6. 나는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	.67		
요인 2			
14. 내 반려동물의 죽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78	
17. 좀 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화가 난다.		.71	
2. 나는 내 반려동물을 살리기 위해 적절하게 조치를 못한 수의사에게 화가 난다.		.53	
요인 3			
1. 요즘 내 반려동물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82
5. 내 반려동물이 죽는 악몽을 꾸 적이 있다.			-.50
9. 나는 나를 떠나버린 반려동물이 밍다.			-.45
eigenvalue	4.60	2.13	1.12
설명변량(%)	38.30	17.78	9.32

표 3. 3요인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SRMR	RMSEA
3요인	187.55***	51	.90	.92	.068	.086 (.073~.100)

\*\*\* $p < .001$

인 수(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5)는 3~4개로 나타났다. 요인 수 4개로 고정하여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구인된 것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준에 불충분하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요인 3개를 확정하였으며, 모든 요인들은 .40 보다 큰 요인 부하량으로 각기 다른 요인들은 .10 이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총 설명변량은 65.40이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슬픔(Grief)’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상실에 대한 슬픈 감정이다. 구성되어 있는 하위척도 문항은 6, 8, 10, 13, 16, 18의 6개의 문항으로 요인이 이루어져있으며 38.30%의 설명량을 나타낸다. 요인 2는 ‘분노(Anger)’로 명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상실한 후 느끼는 주변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다. 하위 척도 문항은 2, 14, 17로 3개의 문항이 요인을 이루고 있으며 17.78%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다. 요인 3은 ‘외상(Trauma)’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상실하고 반복적으로 떨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이다. 하위 척도 문항은 1, 5, 9로 3개의 문항이 요인을 이루고 있으며 9.32%의 설명량을 나타낸다.

###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요인 구조의 타당성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에서 추출한 3요인구조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Amos 23.0을 실행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창호와 유연우(2017)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로 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한 후, 각 연구들에서 요인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문항들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동일한 표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정미림, 이상인, 이영순, 2020; 고윤성, 이영순 2015; 이정애, 2013; 이정은, 이미경, 현명호,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실시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3요인구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B	$\beta$	S.E	CR
문항 13 ← 요인 1	1.00	.78***		
문항 8 ← 요인 1	.89	.78***	.06	15.43
문항 16 ← 요인 1	.95	.79***	.06	15.65
문항 18 ← 요인 1	.98	.74***	.07	14.43
문항 10 ← 요인 1	.73	.62***	.06	11.76
문항 6 ← 요인 1	.89	.73***	.06	14.21
문항 14 ← 요인 2	1.00	.75***		
문항 17 ← 요인 2	.85	.69***	.08	10.36
문항 2 ← 요인 2	.87	.67***	.09	10.18
문항 1 ← 요인 3	1.00	.75***		
문항 5 ← 요인 3	.95	.67***	.10	9.45
문항 9 ← 요인 3	.70	.58***	.08	8.7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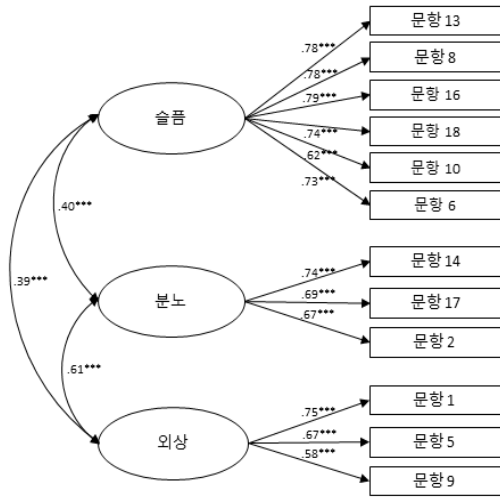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성인용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요인구조 모형

조의  $\chi^2/df$  값은 3이상 이지만 TLI는 .90, CFI는 .92로 일반적인 TLI와 CFI의 적합도 판단 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S RMR는 .068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양명희, 김성희, 2011), RMSEA는 .086(.073~.100)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홍세희, 2000)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표 4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요인구조의 추출된 모형의 회귀계수는  $p < .001$ 로 유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3요인구조는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와 그림 1에서 살펴보면, 3요인의 12개 문항들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58에서 .79의 값을 가진다. Kline(2011)에 따르면 표준화 계수가 0.5 이상이면 측정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타당성을 가지며,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0.5 미만이어야 어느 정도의 변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Hair, Black, Babin, Anderson와 Tatham(2006)은 표준화 계수가 0.5를 넘는 기준치를 나타내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이 일정 수준을 만

족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하고자 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는 집중타당도의 기준을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슬픔과 분노는 .40, 슬픔과 외상은 .39로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노와 외상은 .61로 Kline(2011)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청택(2016)에 의하면 사회과학영역에서 잠재변인들은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음을 가정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본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요인구조의 하위요인 간 상관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요인으로 구성된 하위척도들의 상관관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세 개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29~.47이며, 모든 하위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반려동물 애도 척도에 대한 적절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 과학 영역에서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며 차별성 있는 정적상관이 존재한다(문성원, 2013). 이와 같이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의 각 하위 요인들인 슬픔, 분노, 외상이 .50 이상으로 .68~.84의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5.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 요인 간 상관 (N=362)

	1	2	3	4
1. 반려동물 애도	1			
2. 슬픔	.84**	1		
3. 분노	.72**	.34**	1	
4. 외상	.68**	.29**	.47**	1

\*\* $p < .01$

표 6.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와 우울, 상태분노, 죄책감,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 상관 및 내적일치도

	1	1-1	1-2	1-3	2	3	4	5
1 반려동물 애도	1							
1-1 슬픔	.84**	1						
1-2 분노	.72**	.34**	1					
1-3 외상	.68**	.29**	.47**	1				
2 우울	.41**	.33**	.27**	.34**	1			
3 상태분노	.40**	.17**	.44**	.43**	.59**	1		
4 죄책감	.19**	.30**	.06	-.05	-.02	-.11*	1	
5.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07	-.01	-.10*	-.09	-.33**	-.30**	.42**	1
Cronbach's $\alpha$	.85	.88	.74	.70	.94	.95	.83	.92

\*\* $p < .01$ , \* $p < .05$

###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각 요인들의 내적일치도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요인 1의 슬픔은 .88로 산출되었으며 요인 2의 분노는 .74, 요인 4의 외상은 .70으로 확인하였다.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1998)에 따르면 .70 이상의 내적일치도는 신뢰도가 높은 척도이며, 본 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은 .70 이상이었고 전체 내적일치도는 .85로 산출되었다.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통하여 반려동물 애도 척도가 비교적 신뢰로운 도구임을 검증하였다.

###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 요인구조의 준거 변인들과의 타당도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의 준거 타당도 확보를 위해 본 척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 우울, 상태분노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상이한 개념의 변인으로써 죄책감과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와의 상관계수 결과를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는 우울은 .41, 상태분노는 .40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상을 제외한 두 개의 하위 요인인 슬픔, 분노를 차례로 살펴보면 본 척도의 준거 타당도로 사용된 우울은 각 하위 요인들과 .27~.34, 상태분노는 .17~.44로 높은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본 척도와 상이한 개념의 척도로 죄책감과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죄책감은 슬픔과 .30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지만, 분노는 .06, 외상은 -.05으로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에서는 슬픔은 -.01, 외상은 -.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노와는 -.10의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가 죄책감과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에 적합한 수준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변인들과의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는 외상을 제외한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척도임을 입증하였다.

표 7. 성별 간 반려동물 애도의 차이

변인	성별	N	M	SD	t
애도	남자	73	3.01	0.70	-.85
	여자	289	3.09	0.73	
슬픔	남자	73	3.50	0.80	-2.08*
	여자	289	3.75	0.92	
분노	남자	73	2.58	1.00	.16
	여자	289	2.56	1.06	
외상	남자	73	2.46	0.99	1.15
	여자	289	2.32	0.95	

\* $p < .05$

성별 간 반려동물 애도의 평균 차이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애도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개의 변인을 구성하여 차이 검증을 실행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확인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애도 전체와 분노, 외상의 경우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나 슬픔에 대해서는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슬픔의 경우 남자의 평균은 3.50이고 여자의 평균은 3.75이며  $t$  값은 -2.08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반려동물 애도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애도, 분노, 외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슬픔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애도, 슬픔, 분노, 외상의 평균 차이의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사후 검증 실시에 앞서, 상실 후 경과한

표 8.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차이

영역	상실 후 경과한 기간	N	M	SD	F	사후검증
애도	1 1년 미만	59	3.39	0.70	11.60***	1,2,3>4
	2 1년 이상 3년 미만	119	3.19	0.64		
	3 3년 이상 5년 미만	74	3.10	0.70		
	4 5년 이상	110	2.78	0.75		
슬픔	1 1년 미만	59	4.02	0.73	7.09***	1,2>4
	2 1년 이상 3년 미만	119	3.75	0.76		
	3 3년 이상 5년 미만	74	3.78	0.95		
	4 5년 이상	110	3.41	1.01		
분노	1 1년 미만	59	2.91	1.14	3.21*	1>4
	2 1년 이상 3년 미만	119	2.58	0.99		
	3 3년 이상 5년 미만	74	2.50	1.06		
	4 5년 이상	110	2.40	1.02		
외상	1 1년 미만	59	2.59	1.06	15.11***	1,2,3>4
	2 1년 이상 3년 미만	119	2.66	0.93		
	3 3년 이상 5년 미만	74	2.32	0.91		
	4 5년 이상	110	1.90	0.78		

\*\*\* $p < .001$ , \* $p < .05$

기간을 4개로 범주화 하였으며 이는 반려동물의 상실 후 초기의 감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기 기간에는 세분화하여 범주화하고 5년 이상부터는 하나의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Levene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 애도, 분노는 각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과 외상에서는 각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애도와 분노는 Scheffe로 사후검증을 하였고, 슬픔과 외상은 Games-Howell로 사후검증을 확인하였다(Shingala & Rajyaguru, 2015).

애도 영역에서 상실 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분석의 결과  $F$ 값이 11.60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들이 5년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애도과정에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슬픔 영역에서는  $F$ 값이 7.09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는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과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들이 5년 이상인 사람들 보다 더 큰 슬픔 경험하는 것을 나타냈다. 분노 영역에서는  $F$ 값이 3.21로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이 5년 이상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영역에서는  $F$ 값이 15.11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반려동물을 상실 후 경과한 기간이 대체적으로 5년 미만인 사람들이 5년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반려동물의 상실 후 통상적으로 약 6개월~1년 정도의 애도를 경험한다는 Katcher와 Rosenberg(1982)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5년 미만인 사람들의 외상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5년 정도 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PBQ)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한국 사람들에게도 타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려동물 애도 척도를 수차례 번역 및 역번역 한 후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하였다. 이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한국판 반려동물 애도 척도(K-PBQ)는 원척도와 유사하게 3요인으로 도출되었다. Hunt와 Padilla(2006)의 원척도에서는 슬픔 7문항, 분노 5문항, 죄책감 4문항으로 총 16문항이 도출되었고 트라우마 관련 문항들은 삭제되었으나, 한국판 척도에서는 슬픔 6문항, 분노 3문항, 외상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 도출되었고, 죄책감 관련 문항들이 삭제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흡수되었다.

먼저, 원척도에서 슬픔에 속했던 일곱 개의 문항들 중 3번, 4번, 19번 문항들이 한국판 척도에서는 삭제되고 1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원척도에서 삭제되었던 18번 문항(내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과 죄책감에 속했던 10번 문항(내 반려동물을 좀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이 한국판 척도에서는 1요인으로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1요인에 여섯 개의 문항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원척도의 하위요인 명을 따라 슬픔으로 명명되었다. 2요인의 경우, 원척도에서 분노 요인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문항 중 15번 문항(내 반려동물의 질병/상처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이 삭제되고 5번 문항(내 반려동

물이 죽는 악몽을 꾸 적이 있다.)이 3요인으로 흡수되면서 최종적으로 세 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이를 원척도의 요인명을 따라 분노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요인의 경우, 원척도에서는 삭제되었던 1번 문항(요즘 내 반려동물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9번 문항(나는 나를 떠나버린 반려동물이 밋다.)이 흡수되었으며 여기에 원척도에서 분노 요인에 속했던 5번 문항(내 반려동물이 죽는 악몽을 꾸 적이 있다.)이 함께 묶이면서 최종적으로 세 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원척도에서 이론적으로 외상이라고 요인명을 정했던 것을 따라 외상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문항들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잠재변인에 대한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충분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문항들로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반려동물 애도 척도와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경우 슬픔 .88, 분노 .74, 외상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하고자 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신뢰도가 전체 및 슬픔, 분노, 외상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70 이상인 것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애도 척도, 각 하위요인과 우울, 상태분노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애도 척도의 슬픔 하위요인과 죄책감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려동물 애도 척도, 각 하위요인과 사회적지

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유의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각 척도 간의 변별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를 타당화 함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반려동물 애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정략적 연구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가 없었다. 정민지(2019)가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척도가 있으나, 정교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인구조가 원척도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분석만 이루어졌기에 타당화된 척도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Hunt와 Padilla(2006)가 이론적으로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상실하는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는데 사용된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척도와 비교할 때,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반려동물 애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unt와 Padilla(2006)의 연구에서 슬픔, 분노, 죄책감, 외상 중 최종적으로 도출된 하위요인은 슬픔, 분노, 그리고 죄책감 등 세 개였다. 본 연구에서도 세 개의 하위요인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종류가 슬픔, 분노, 그리고 외상으로 나타나 Hunt와 Padilla(2006)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즉, 미국에서는 죄책감이, 국내에서는 외상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unt와 Padilla(2006)의 연구에서 죄책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내 반려동물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반려동물을

살리기 위해 더 애쓰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등 반려동물의 건강에 더 신경쓰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외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요즘 내 반려동물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내 반려동물이 죽는 악몽을 꾸 적이 있다.’, ‘나는 나를 떠나버린 반려동물이 밋다.’ 등으로 주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다뤄지는 꿈이나, 미움과 같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죄책감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낄 때 경험하는 감정이며(Berndsen, van der Pligt, Doosje, Manstead, 2004), 외상은 어떤 사건(지인의 죽음, 상해, 신체적 및 성적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인 충격이다(APA, 2013). 즉,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능동적인’ 태도로 인해 경험하는 것이고, 외상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 압도되어 느끼는 ‘수동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Hofstede(2011)의 문화차원이론에 의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화차원은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차원, 장기지향 vs 단기지향 차원, 쾌락추구 vs 절제 차원인 것으로 나타난다(Hofstede Insight, 2022년 2월 20일).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훨씬 집단주의적이고 장기지향적이며 절제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나’보다는 ‘우리’를 의식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타인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장기지향적이고 절제한다는 면에서 즉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참고 넘어가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가 Hunt와 Padilla (2006)가 연구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려동물 애도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원칙도에서는 죄책감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외상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반려동물 애도 척도를 통하여 성별 및 반려동물을 상실한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반려동물을 상실한 이후에 더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분노나 외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 상실 후 겪는 심리적 고통 가운데 슬픔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며, 우울한 기분, 쉽게 우는 모습과 같이 정서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Carter, Joyce, Mudler, Luty, & McKenzie, 2000). 국내에서도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이동훈 외, 2013).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반려동물 상실 후 겪는 슬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상실하여 심리적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날 경우, 그 성별에 따라 필요한 개입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약 5년 정도까지는 상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tcher와 Rosenberg(1982)가 반려동물 애도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해외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198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해 많이 발전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그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국내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반려동

물 장례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의 장례 휴가에 대해 76.3%, 조의금을 주는 것에 대해 86.2%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애니멀피플, 2021: 김지숙, 2022a에서 재인용). 반려동물을 양육한 사람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은 '가족'을 잃은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공감 받지 못하고 때로는 감춰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지숙, 2022b). 이는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 기간이 해외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즉,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이 충분한 애도를 하면서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상실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역동적 측면이나 Bowlby의 애착이론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지연된 애도를 겪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을 상실한 양육자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도 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기 쉽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Derrida(1995)는 상실한 대상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내면에 살아있는 대상으로서 계속 기억하며 추모하는 것을 애도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Baker(2001)도 성공적인 애도는 죽은 대상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품고서 언제든 지원할 때 그 따뜻한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을 상담 현장에서 마주한다면, 이들이 경험하는 슬픔, 분노, 외상에 대해 깊은 공감적 이해를 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정당화하여 위로를 할 필요가 있다(Allen, 2007).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깊은 공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고안한 초기 문항 20개를 모두 번안하였으나, 여전히 해외의 문헌을 번안하기만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적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척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는 것과 함께 국내 선행연구, 필요하다면 개별 심층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문항을 탐색하고,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문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외도의 준거관련 타당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본 척도는 Hunt와 Padilla(2006)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 초기에 준거관련 타당도를 위한 척도로 우울, 분노, 그리고 죄책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죄책감이 삭제되고 외상이 채택됨으로써, 외상 요인만 준거관련 타당도 척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본 척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외상과 관련하여 준거관련 타당도의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외상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과정을 밝혀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추후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윤성, 이영순 (2015). 경쟁 회피 적도의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2(3), 465-48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세종: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도현, 김정민, 안세은, 염정아, 조은서, 최연지, 윤현주, 오병우 (2021). 펫로스 증후군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추모 공간 플랫폼. In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p. 691-695). 대전: 한국정보기술학회.
- 김지숙 (2022a). “가족이 떠났는데, 경조휴가 1주일 낼 수 있을까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30710.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30710.html)
- 김지숙 (2022b).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펫로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27751.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27751.html)
- 김청택 (2016).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남순예 (2011). 유기체 철학의 관점에서 동물에 관한 고찰. **새한철학회**, 64(2), 201-220.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모효정 (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0), 91-120.
- 문성원 (2013).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 기술 평정척도 (K-SSRS-S: 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99-215.
- 박소명, 전순영 (2020). 애도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반려동물 상실 경험 여성의 우울과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5), 971-994.
-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2nd edition)**. 파주: 21세기사.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0), 241-269.
- 심종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에니멀피플, 공공의창, 한국엠바빙·웰다잉문화운동 (2021). **한국 반려동물 장례인식조사**. 서울: 한겨레.
- 양명희, 김성희 (2011).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5), 1629-1644.
- 오연주 (2008). 모(母) 사별 성인의 만다라 그림에 나타난 애도과정의 상징 연구 - 우울감소를 위한 만다라 미술치료에 관한 개인 사례 -.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1-21.
- 이동훈, 함경애, 김지윤, 김민경, 정성원, 김정범 (2013). 성별에 따른 주요우울증의 DSM-IV 증상 연구- 한국판 정신장애 진단선별질문지(Korean Psychiatric Diagnostic Screening Questionnaire; K-PDSQ)를 중심으로 -. **재활심리연구**, 20(3), 501-522.
- 이용숙 (2017).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2), 337-403.
- 이정애 (2013). 단축형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4(2), 1093-1106.
- 이정은, 이미경, 현명호 (2012). 한국판 수용인정척도의 타당화. **스트레스연구**, 20(3), 159-167.
- 전점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XI-K) 개발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1), 33-50.
- 전문희, 구훈정 (2020). 반려동물 사별로 인한 애도와 지속 비애의 관계: 성인불안애착으로 조절된 부정적 비애 인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20(4), 494-517.
- 정미림, 이상인, 이영순 (2020). 한국판 비자살적자해 신념 척도의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7(4), 165-188.
- 정민지 (2019). **성인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과 복합 비애**.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지, 안현의 (2020). 성인의 반려동물 안락사 경험과 복합 비애: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21(2), 269-289.
- 조은임 (2013).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3042618263468932>
- 주혜선, 민지원, 김아영, 안현의 (2015). 주요 외상 정서의 한미 비교 연구: 외상정서평가 척도(TAQ)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5(3), 571-594.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1년 12월 15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94&ccfNo=1&cciNo=1&cnpClsNo=1>
- 최세아, 윤보영, 공리나 (2022). 영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에 나타난 반려동물의 의미와 펫로스 증후군 상담의 필요성 연구. **한국문학치료연구**, 62(0), 227-251.
- 최창호, 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최형문, 문미경, 이군호. (2021). 펫로스 증후군을 위한 VR 반려동물 교감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9(2), 563-564.
- 통계청 (2021).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방안 연구(연구보고 R824)**.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rian, J. A. L., Deliramich, A. N., & Frueh, B. C. (2009).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humans' response to the death of pets/animal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3), 176-187.
- Allen, M. A. (2007). "Ten Tips on Coping with Pet Loss.", <http://www.pet-loss.net>에서 검색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vision of Research. (2013). Highlights of changes from DSM-IV to DSM-5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Focus*, 11(4), 525-527.
- Baker, J. E. (2001). Mourn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object relationships: Evidence for the persistence of internal attachments. *Psychoanalytic Psychology*, 18(1), 55-73.
- Barnard-Nguyen, S., Breit, M., Anderson, K. A., & Nielsen J. (2016). Pet loss and grief: Identifying at-risk pet owners during the euthanasia process. *Anthrozoös*, 29(3), 421-430.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561-57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Medical Division.
- Berndsen, M., van der Pligt, J., Doosje, B., & Manstead, A. (2004). Guilt and regret: The determining role of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harm. *Cognition and Emotion*, 18(1), 55-70.
- Brown, B. H., Richards, H. C., & Wilson, C. A. (1996). Pet bonding and pet berea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5), 505-510.
- Brown, O. K., & Symons, D. K. (2016). "My pet has passed": Relations of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urrent feelings of grief and trauma after the event. *Death Studies*, 40(4), 247-255.
- Carmack, B. J. (1985). The effects on family members and functioning after the death of a pet. *Marriage & Family Review*, 8(3-4), 149-161.
- Carmack, B. J. (2003). *Grieving the death of a pet*. Minneapolis, MN: Augsburg Books.
- Carter, J. D., Joyce, P. R., Mudler, R. T., Luty, S. E., & McKenzie, J.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f depressed outpatients: A comparison of descriptive variab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61(1-2), 59-67.
- Chur-Hansen, A. (2010). Grief and bereavement issues and the loss of a companion animal: People living with a

- companion animal, owners of livestock, and animal support workers. *Clinical Psychologist*, 14(1), 14-21.
- Cohen, S. P. (2002). Can pets function as family member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Special Issue: Human -Animal Interaction*, 24(6), 621-638.
- Compitus, K. (2019). Traumatic pet loss and the integration of attachment-based animal assisted 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9(2), 119-131.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1), 7.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Toronto: Holt, Rinehart, and Winston.
- Derrida, J. (1995). *The gift of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iedmann, E., & Thomas, S. A. (1995). Pet ownership, social support, and one-year survival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Cardiac Arrhythmia Suppression Trial (CAST). *Th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76(17), 1213-1217.
- Gerwolls, M. K., & Labott, S. M. (1994) Adjustment to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Anthrozoös*, 7(3), 172-187.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and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Hofstede Insight. (2022년 2월 20일). <https://www.hofstede-insights.com/product/compare-countries/>에서 검색
- Hofstede, G.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26.
- Holman, E. A., Silver, R. C., & Waitzkin, H. (2000). Traumatic life event in primary care patients: A study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Archives of Family Medicine*, 9(9), 802-810.
- Hunt, M., Al-Awadi, H., & Johnson, M. (2008). Psychological sequelae of pet loss following Hurricane Katrina. *Anthrozoös*, 21(2), 109-121.
- Hunt, M., & Padilla, Y. (2006). Development of 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th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Other Animals*, 19(4), 308-324.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141-151.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atcher, A. H., & Rosenberg, M. A. (1982). Euthanasia and the management of the client's grief. *California Veterinarian*, 36(0), 31-3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walski, G. (2012). *Goodbye, friend: Healing wisdom for anyone who has ever lost a pet*. Novota, CA: New World Library.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01.
- Mohanti, B. K. (2017). Grieving the loss of a pet needs the health system recognition. *Journal of Social Work in End-of-Life & Palliative Care*, 13(4), 215-218.
- Morley, C., & Fook, J. (2005). The importance of pet loss and some implications for services. *Mortality* 10(2), 127 - 143.
- Nieburg, H. A. (1984). Domestic pet loss and self-reported dep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1): 3536B.
- Packman, W., Bussolari, C., Katz, R., Carnack, B. J., & Field, N. P. (2016).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the loss of a pet.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75(4), 337-359.

- Packman, W., Carmack, B. J., Katz, R., Carlos, F., Field, N. P., & Landers, C. (2014). Online survey as empathic bridging for the disenfranchised grief of pet los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9*(4), 333-356.
- Planchon, L. A., Templer, D. I., Stokes, S., & Keller, J. (2002). Death of a companion cat or dog and human bereavement: Psychosocial variables. *Society & Animals, 10*(1), 93-105.
- Podrazik, D., Shackford, S., Becker, L., & Heckert, T. (2000). The death of a pet: Implications for loss and bereavement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 & Interpersonal Loss, 5*(4), 361-395.
- Pole, N., Best, S. R., Weiss, D. S., Metzler, T., Liberman, A. M., Fagan, J., & Marmar, C. R. (2001). Effects of gender and ethnicity on duty-relate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urban police officer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9*(7), 442-448.
- Quackenbush, J. E., & Glickman, L. (1984). Helping people adjust to the death of a pet. *Health Social Work 9*(1), 42-48.
- Quackenbush, J., & Graveline, D. (1985). *When your pet dies: How to cope with your feelings*. New York: Simon & Schuster.
- Rando, T. A. (1993).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omplicated mourning: The onslaught is just beginning.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26*(1), 43-59.
- Rujoiu, O., & Rujoiu, V. (2014). Pet loss and human emotion: Romanian students' reflections o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9*(5), 474-483.
- Sable, P. (2013). The pet connection: An attachment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1*(1), 93-99.
- Scherer, K. R., & Wallbott, H. G. (1994). Evidence for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differential emotion response patte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2), 310-328.
- Sharkin, B. S., & Knox, D. (2003). Pet los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is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34*(4), 414-421.
- Shingala, M. C., & Rajyaguru, A. (2015). Comparison of post hoc tests for unequal var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ew Technolog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2*(5), 22-33.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orthridge, Cal: Harper Collins.
- Tangney, J. P., Dearing, R. L., Wagner, P. E., & Gramzow, R. (2000).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3 (TOSCA-3)*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 Taylor, S., & Breen, L. (2014). Exploring pet loss for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A hitherto uncharted terrain of trauma impact and recovery. *Child Abuse Review, 23*(5), 353-360.
-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7). Uses of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14 - 424.
- Triebenbacher, S. L. (2000). *The companion animal within the family system: The manner in which animals enhance life within the home*. In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357 - 374, ed. A. H. Fin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urner, W. G. (2001). Our new children: The surrogate role of companion animals in woman's lives. *The Qualitative Report, 6*(1), 1-10.
- Tzivian, L., Friger, M., & Kushnir, T. (2014). Grief and bereavement of Israeli dog owners: Exploring short-term phases pre-and post-euthanization. *Death studies, 38*(2), 109-117.

Verga, M., & Michelazzi, M. (2009). Companion animal welfare and possible implications on the human - pet relationship. *Italian Journal of Animal Science*, 8(1), 231-240.

Wrobel, T., & Dye, A. (2003). Grieving pet death: Normative, gender, and attachment issues.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47(4), 385-393.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고접수일 : 2022 년 04 월 18 일  
수정제출일 : 2022 년 05 월 17 일  
게재확정일 : 2022 년 06 월 21 일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K-PBQ)

Jeon, Eunji

Choi, Kihyun

Ha, Junghee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scores. We conducted a factor analysis using data from 362 adults who had experience losing pets. Ou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ed in 12 items within three factors: grief, anger, and trauma.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on each item and reliability for the K-PBQ total score were suppor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reliability value. Criterion validity was supported by positive correlations of the K-PBQ with BDI, State Anger, and Guilt scales scores. Evidence of discriminant validity was also supported by a non-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K-PBQ and Multidimensional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vels of bereavement, anger, and trauma between two gender groups, whereas wo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grief than their men counterpart. Lastly, participants in our study reported a similar level of psychological pain within five years of losing their pets.

*Keywords* : adults,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pet, pet-loss, validation